불자 세상보기

소외 아닌 소통의 자비행을



선업 스님
통담아카데미아 원장

세월은 어김이 없다. 손과 발이 오그라들고 등이 시린 걸 보니 겨울이다. 이 때 등장하는 대표적 문구가 '소외된 이웃돕기' 이다.

먼저 '소외' 에 방점을 찍고 사전을 찾아보니 '어떤 무리에서 기피하여 따돌리거나 멀리함' 이라고 되어 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의미의 '소외' 가 검색된다.

교육학용어 사전에서는 '개인이 그가 속해 있는 사회와의 관계에서 통합되지 못하거나 거리가 있는 상태' 를 의미하고 동녘에서 발행한 철학 사전에서는 '인간이 자신의 활동을 통해 만들어 낸 생산물, 관계들 및 제도가 오히려 인간 위에 군림하는 낯선 힘이 되어 인간을 지배하고, 인간이 맹목적이고 제멋대로인 그 힘의 작용에 종속되는 사회적 관계' 를 뜻한다.

소외와 관련된 '무리, 관계, 사회, 제도, 타자' 와 '기피, 거리, 분리, 소원감, 강제적, 멀어진, 상실, 지배, 종속' 과 같은 단어를 연결하면 결국 소외란, '어떤 대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거리가 멀어진 상태' 라고 할 수 있겠다.

소외의 상태가 되면 발생하는 심리적 문제를 정리해 보면, 우선 바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느끼는 무력감에 시달리게 된다. 이어서 현재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예측 불가능하다는 생각에 빠져 현재 삶의 가치를 부정하는 무의미성이 증가한다. 게다가 합리적인 방법으로는 목표를 이

소외 이웃 아닌 '소통 이웃' 으로
내·외부 가난을 없애기 위해
'보시바라밀' 실천이 중요하다

룰 수 없을 때 선택하는 무규범적 행동을 하게 되며, 이와 연계되어 고립과 자기 소외가 발생한다.

결국 주변 사람들과의 거리감이 생기면서 사회에서의 자신의 존재적 가치를 과소평가하게 되고 카프카의 '변신' 에서 하루아침에 벌레로 변해 버린 주인공이 주위의 외면 속에 쓸쓸히 생을 마감하듯 '현존재' 에 대한 '존재이해' 부족으로 '실존적 소외' 를 겪으며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이렇듯 사회적 존재의 의미가 축소된 이들을 '소외된 이웃' 이라고 한다면 인간 소외로 인한 소외된 이웃의 발생원인 중 하나인 '경제적 요인' 에 의한 '현실 비관' 도 간과할 수 없다.

아서 밀러의 희곡 '세일즈맨의 죽음' 에 등장하는 '하워드' 로 대표되는 '생산력' 즉 '경제적 능력' 이 인간 능력의 척도가 되면서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이들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가 자기 주체성 상실을 가져오고 결국에는 자기 소외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소외시킨 불특정 다수에 대한 '불황, 실직, 소외 형 '묻지 마 폭력' 의 증가를 통해 사회 전반의 문제로 확대 재생산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런 소외된 이웃을 소통적 이웃으로 바꾸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 답은 마음 안, 곧 내부의 가난을 없애고 더불어 외부의 가난을 없애는 보시바라밀의 실천에 있다.

먼저 내적 가난을 없애는 방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재이유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진리를 나누는 법담, 상담 그리고 문화 및 예술치유 활동 등의 방법을 통해 지금 여기에 함께 존재함이 바로 존엄의 증거임을 확인시켜야 한다.

다음으로 외적 가난을 없애는 방법은 의식주로 인한 결핍을 없애는 경제적 나눔과 물질적 베풂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바자회와 공익법인 등에 보시하는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런 활동은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인 '기능' 을 회복시켜 모든 존재와의 '상호 연결성' 을 체득하게 하고 소외에서 벗어나 소통할 수 있도록 한다.

돕기의 계절인 지금이 절호의 기회다. 재정 확보와 소통 훈련을 통한 공생 운동에 적극 동참하자. 우리의 도움이 구조화되는 그 순간, 자신의 존재 이유를 상실하여 스스로를 낮추어 보거나 대상과의 물리적 또는 심리적 거리감으로 삶이 괴로운 소외된 이웃은 소통의 이웃으로 대치되어 바라밀의 동참자로 제대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특별기고

民心·佛心의 촛불을 따르길



진광 스님
조계종 교육국장

11월 26일 광화문 광장에서는 대통령 퇴진과 진실 규명을 외치는 제5차 촛불집회가 열렸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100여 스님들과 함께 나간 광화문 광장에는 190만에 달하는 국민들이 운집해있었다. '불교가 사회와 소통해야 한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행동에 동참해야 한다' 는 스님들의 목소리를 받아 '파사현정' 의 플래카드를 들고 함께 광장에 나섰다.

승려의 신분으로 정치적 구호가 들어간 피켓은 들 수 없었지만 대신 연등으로, '파사현정' 으로 이들의 마음과 함께 했다. 광화문 앞에서 묵언과 함께 정권을 준엄히 꾸짖는 스님들을 보고 시민들도 함께 호응했다.

이날 광장에서 만난 촛불시민들은 참으로 다양했다. 중고생들부터 나이 많은 할머니와 할아버지, 아이를 안고 온 엄마와 젊은 연인 등 지금 현재의 시국에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 강추위 속에서도 시종일관 평화롭게 진행되는 집회를 보며 이 대중들의 차가운 이성 속에 숨어 있는 더 큰 분노가 느껴졌다.

레지스탕스 출신 작가인 스테판 에셀은 〈분노하라〉란 책에서 '분노와 참여를 차단하는 무관심이야 말로 최악의 태도' 라고 했다. 그는 "가만히 앉아

차가운 이성 속 숨은 분노 보라
거짓은 참을 결코 이길 수 없다

있으면 결코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고 말한다.

하지만 요즘 시국은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온 국민의 촛불민심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도리어 큰소리를 친다. '젊은이들에게 분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는 스테판 에셀의 '레지스탕스의 발언' 은 이 시대 모든 이들에게 또 다른 메시지를 준다.

문득 행진을 하다 추워 보이는 한 중고생을 발견했다. 힘들지 않느냐는 걱정어린 말에 그 소녀는 "나라가 더 걱정이다" 고 말했다. '아, 우리 세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들까지 거리로 나서게 했구나… 자라나는 세대에게 참으로 부끄럽다' 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초롱초롱한 그 눈동자를 보며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을 느꼈다.

'제왕(帝王)은 무치(無恥)' 라는 옛 고사에서 나온 말이 있다. 옛말에 임금은 부끄러움이 없다고는 하지만 그런 대통령을 가진 국민은 불행하고 부끄럽기만 하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대통령은 제왕인가? 진정 역사와 민족 앞에 부끄럽지 아니한가 묻고 싶다. 우리가 지금 3공화국에 사는지, 일제강점기를 사는지, 아니 구한말에 살고 있는지 정말로 묻고 싶다.

무엇보다 우리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는 말과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다' 는 헌법적 가치를 믿는다.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믿는다. 훗날 역사가 이것을 증명해 줄 것이란 것을, 또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준 작은 권력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이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다. 그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항상 제 발밑을 살펴보고(照顧脚下)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줄(放下着) 알며, 그르쳐가지 말아야(莫錯過) 할 일이다. 그러면 부끄럽고 욕되지 않으리라 믿는다.

조지훈 시인은 '낙화' 라는 시에서 "꽃이 진다고 바람을 탓할 소냐" 고 했다. 그것이 인생과 자연의 철학이다. 국민의 뜻이 곧 하늘의 천명일진데 따르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형기 시인의 '낙화' 일부를 읊어본다.

가야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싸여
지금은 가야할 때

社說

탈북민 포교 전략 바꿔야 할 때다

탈북민 포교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할 것 같다. 그동안 탈북민들은 한국 입국 전에 종교활동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중국으로 입국하는 경우가 많아 종교활동은 중국서 이미 이뤄졌다. 짐작컨대 기나긴 도피생활로 지친 마음을 종교에 의지하고픈 열망이 강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탈북민들의 입국 절차 및 체류 기간에 변화가 생기면서 종교 생활도 함께 변화의 기류가 흘렀다. 우선 최근 입국자의 경우 중국 체류 기간이 과거에 비해 짧아졌고, 중국 당국이 탈북자 지원 종교기관의 단속도 강하게 하고 있다.

이에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좁아졌다. 통계를 보면 이같은 현상에 고개가 끄덕여 진다.

탈북민들의 종교활동 시작 시점을 조사한 결과, '조사시설서부터' 라 응답한 자가 2,791명(33.9%), '중국에서부터' 가 2,518명(30.6%), '하나원서부터' 가 2,435명(29.5%), '중국 외 제3국에서부터' 가 344명(4.2%), '북한에서부터' 가 154명(1.9%)으로 나타났다. '남한 입국 전후' 비율로 비교 시 '중국에서부터' 포함 입국 전 종교활동을 시작한 비율은 36.6%이며, 입국 후 비율은 63.4%다. 앞서 2008년 백서에선 '중국에서부터' 가 51.4%, '조사시설서' 가 39%, '하나원서' 가 7.7%로 집계됐다.

이는 조사시설과 하나원이 탈북민의 종교생활에 점차 큰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다. 현재 조사시설과 하나원에는 포교사가 매주 일요일 정기 법회를 진행한다. 다만 조사시설엔 불상이나 법당이 없고, 종교의식도 불가하다. 불교·개신교·가톨릭 종교인들이 각 종교의 기초 교리를 전달하는 수준이다.

앞으로 다른 종교보다 한발 더 빨리 이 두 곳을 계속 주목하며, 탈북민 포교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

문화재 절도·은닉 공소시효 없애야

도난됐던 보물급 불상을 포함한 불교문화재 11점이 회수됐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1월 29일 "도난된 불교문화재를 27년간 은닉한 前사립박물관장 A씨와 아들인 前박물관 국장 B씨 등 2명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 고 밝혔다.

사실 A씨는 불교계와 악연이 깊다. 2006년 자신이 운영하던 박물관서 도난당한 불화를 전시한 것이 알려져 불교계와 갈등을 빚었다. 또한 지난 2014년에도 문화재 은닉죄가 인정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구형받은 바 있다. 당시 불교문화재 48점이 환수돼 사회에 충격을 줬다.

현재 A씨는 1991년~1996년경 문화재 매매업자(2014년 사망)로부터 도난 여부를 모르고 1억7천5백만 원에 구입했다고 선의취득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의 선의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은닉사범으로 검거되는 것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문화재 관리가 얼마나 허술하게 이뤄졌는지를 보여주는 방증이다. 그래서 정부와 유관단체 등은 조계종과 불교계의 '문화재 절도와 은닉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주장에 귀 기울여야 한다. 그래야만 문화재의 도난과 밀거래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

또한 박물관과 경매업체, 개인 컬렉터 등 전문 취급자에게는 문화재 구입 시에 출처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관련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문화재는 우리 선조들의 후손에게 남긴 문화의 핵심이다. 이를 도둑질하는 것은 역사를 도둑질하는 것과 같다. 문화재 절도와 은닉은 중범죄임을 법개정을 통해 사회에 각인시켜야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혜원 편집인 : 혜도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불자와 사찰간의
다양한 소식, 뉴스, 혜택 등
모든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불교 대표 어플리케이션
절로
사찰의 다양한 소식을
절로에서 받아보세요!
불교 대표 어플리케이션 절로 다운로드
Google Play (안드로이드용)
App Store (아이폰용)
"절로" 검색 후 다운로드
절로 문의전화
불자/신도 무료이용 사찰/단체 이용문의
☎ 1644 - 9108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지리산과 덕유산 일대의 자연다슬기와 국내산 약재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1개월 60팩
80ml×60팩 (1BOX)
선조들의 지혜가 듬뿍 담겨 있는 지리산 다슬기 진 골드로
생활의 활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신장과 시력보호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 다슬기를 주 재료로 하여 맑은 지리산 계곡물과 함께 각종 약재를 함께 넣어서 정성껏 달였습니다. 장시간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과 수행에 지친 분들께 원기를 복돋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선물 입니다.
제품문의 : 02)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125,000원 (무료배송)